

#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신뢰받는 소통 의정,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쳐 모범적인 의회 상을 정립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선거구 의원인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하서면 장신지구가 매년 극심한 물부족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었다. 특히 올 여름은 30여년 만에 폭염과 가뭄으로 벼 수잉기 논이 타들어가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타들어가는 논만 쳐다보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안관리구(단장 김현철),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장신제·현지제 저수율을 만수위로 채웠다.

인근 35ha 농경지 70여 농가의 타들어가는 영농가뭄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벼농사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수잉기 때 소중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하서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황선희)로 부터 면민들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부안군을 발전하기 위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의정활동 벌여 장신지구 물 부족 해결·새만금 인접 계화간척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 마련에 힘써와

군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소통과 함께 의정의 표본이라고 감사패를 받았다.

제7대 의회 개원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새만금부지의 농업인 분양 대책 마련, 부안군 학교급식 식자재 관내 농수산물 조달 제안, 새만금 비산 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가경작 허용을 주장하는 등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확보한 국가예산이 불용처리돼 집행부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꼬집는 한편,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담수호 수질관리 문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 등 집행부의 미진한 행정대응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등 연이은 의정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2년여의 짧은 의정기간 동안 초선의 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현장대응 능력을 발휘해 지역주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각종 어려움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만금 인접 계화간척지에 연이은 양돈장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가교역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새만금사업 부지와 인접지역인 계화간척지 내 축사 유입이 지속될 경우 새만금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환경 문제로 대규모 우량농지가 잠식될 수 있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앞장서 악취의 주된 원인이 되는 양돈장 등 집단화

축사설치 방지를 해결했다. 지역주민들의 현안 난제를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어르신 효 잔치, 농업인 단체협의회, 하서·계화 이장단협의회 등 각종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나 행사에 참석하여,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책 마련에 힘쓰면서 군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일선 지도자와 공직자들과 화합을 보여줬다.

지역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한수 의원은 “의원은 지역의 봉사자라고 생각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미래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수상소감에서 이 의원은 “추석에 앞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 어깨가 더욱 무겁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남원 순정과 먹거리

순향애인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언제나 변함없는 순향이의 마음처럼  
농민의 진심을 지켜갑니다

남원시